

의과대학생들의 SNS 이용형태 분석 및 고찰

조정준·어효신·변석호·양기욱·이재호·이현수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해부학교실

Analyzing SNS Usage Patterns of Medical Students

Jeong Jun Jo, Hyo Shin Eo, Seok Ho Byun, Kiwook Yang, M.D., Jae Ho Lee, M.D.,
Hyunsu Lee, M.D.

*Department of Anatom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Received: March 27, 2017

Revised: April 28, 2017

Accepted: May 31, 2017

Corresponding Author: Hyunsu Lee, M.D.,

Department of Anatom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42601,
Korea

Tel: +82-10-2039-9985

E-mail: neuroana@dsmc.or.kr

• This study was made with a scholarship for the
presentation of academic research papers for
students of the 2016.

• The authors report no conflict of interest in this
work.

University life can be stressful for even the most satisfied students. Especially medical school students have higher levels of stress. To manage their stress level and social connection, they are using S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NS on medical students by analysis of SNS use pattern of medical students. In the analysis of the first grade of Medicine, 51 students (58.6%) posted on Facebook in the past year and posted a total of 1,452 articles (average: 28.5). We analyzed the content of the posts and found that most of them were celebrating a birthday (50%) or confirming their regards (18%). Next, there were other people's posts (10%) and travel posts (6%). Besides, there were profile photo upload (3%), school life (3%), romance (2%) or family (1%). Female students (16 times / 17 students) changed the profile pictures more frequently than male students (18 times / 34 students) ($p = 0.003$).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all items except for the change of profile picture according to sex.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the content of the share showed that most of the contents shared about humor (42%), food (15%) and music (14%). Most of the medical students used SNS primarily for social activities, not for educational purposes. Based on this analysis, there should be more research on how SNS can help medical students during medical education.

Keywords: Life, Medical school student, Social network system

서론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도전에 직면하여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대학생 중에서도 의과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학습량, 긴 학업기간, 유급 및 성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를 겪는다는 선행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1]. 국내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10명 중 1명이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4.2%가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으며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학생은 2.2%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한 학생은 10명 중 6명이고,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기 원하는 학생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2-4].

스트레스는 일상생활 또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한 것일 수 있으며 사람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지만 부적응, 우울증, 학업부진 등의 문제를 겪는 사람도 있다. 스트레스의 유무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의과대학생들의 경우 다른 일이나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5]. 의과대학생은 일반대학생보다 수면과 휴식, 성생활, 레저와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와 기회가 부족하고, 의사나 의과대학생들은 낙인, 오명으로 인해 정신과적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6]. 특히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은 의과대학생이라면 당연히 겪게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자신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과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 중 하나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Social network system 바로 SNS이다. 인터넷은 네트워크 중의 네트워크로 불리며 인류의 삶과 사회문화 구조를 거미줄 같은 웹으로 구축했다. 웹 시대의 시작은 그간

포털 중심의 독점적 소통 생태계에서 탈피하고 개방·공유·자율의 패러다임을 강조하며, 블로그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왔다. 이를 기반으로 한 SNS의 등장은 소셜미디어의 확산 및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폭발적인 증가를 낳았다[7]. SNS는 기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적 소통과 참여 채널의 확대,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변화를 일으키며 급속히 퍼지고 있다.

SNS는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미니홈피,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프로필 기반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와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등장으로 SNS 이용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벤처비트 닷컴(<http://www.venturebeat.com>)에 따르면,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facebook.com)의 일 사용자가 2014년 8억 3천만 명에서 2016년 상반기 11억 3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SNS가 빠르게 퍼지고 사회적으로 주목 받으면서, SNS의 확산이 가져올 긍정적 기대감과 함께 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8]. 이에 우리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SNS 사용 실태와 이용 행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의과대학생들의 SNS 사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속한 의학과 1학년의 의과대학생 87명을 표본집단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SNS 서비스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한정하여 학생들의 사용빈도와 사용 내용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학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인 2014년 9월(의예과 2학년 2학기)에서 2015년 8월(의학과 1학년 1학기)까지 1년간 활동내용을 조사하였다. 각 학생이 올린 글의 수와 글의 내용을 공유, 프로필 사진업로드, 생일, 안부확인, 학교생활, 가족, 연애, 여행 등으로

나누어 그 빈도를 조사하였다. 수집된 결과는 SPSS ver.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test로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나이는 20세에서 24세로 페이스북의 모든 정보와 게시물을 열람하였다. 51명의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총 1,452개(평균: 28.5개, 범위 1-83)의 글을 게시하였다. 게시한 글의 수는 남녀에서 차이가 없었다.

게시한 글의 내용을 공유, 프로필 사진업로드, 생일, 안부확인, 학교생활, 가족, 연애, 여행,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일을 축하하는 글(50%)이나 안부를 확인하는 게시물(1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Fig. 1). 그다음으로 글을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공유하는 경우(10%)가 많았고, 여행을 가서 올린 게시물(6%)이 그 뒤를 따랐다. 그 외, 프로필 사진 업로드(3%), 학교생활(3%), 연애(2%) 혹은 가족(1%) 등이 있었다. 또한, 프로필 사진용 이외로 개인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 외의 항목으로 교외생활, 사진 추가, 커버 사진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성별과 나이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는 횟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는 횟수는 여학생(16회/17명)에서 남학생(18회/34명)에 비해 높게 나왔다($p = 0.003$).

한편 공유를 하는 게시글의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 유머(42%), 음식(15%), 음악(14%)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2). 그 외, 정치, 영화, 여행, 스포츠, 이벤트, 학습, 연애, 인문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공유하는 내용 역시 남녀에서 유의성 있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고 찰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와 다양한 유형의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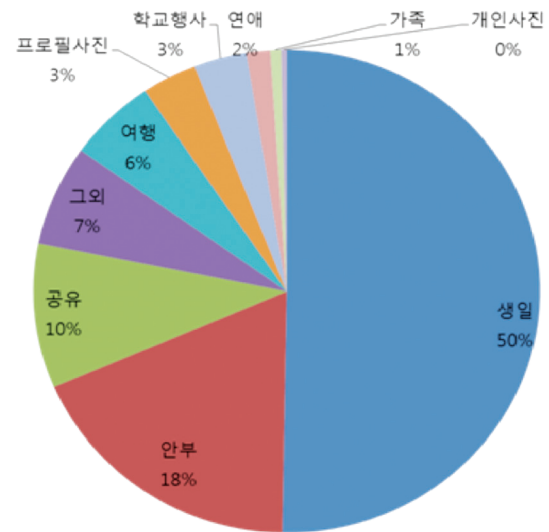


Fig. 1. Classification of article posted on social network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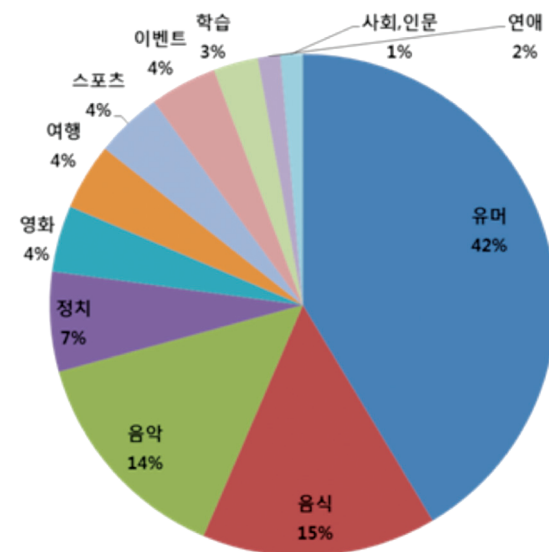


Fig. 2. Analysis of the article shared in social network system.

서비스 등장으로 SNS 이용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9,10].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페이스북의 2014년 1분기 실적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 수가 12억7천만 명을 넘어섰고, 일 이용자도 8억 명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국내의 경우,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페이스북 월간 이용자

수가 1천3백만 명에 이르며 이 중 92%는 모바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하고 있다[9,10].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된 나이별, 성별에 따른 SNS 이용실태 조사 중, KISA의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6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중 55.1%가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SNS 이용률은 여성(56.2%)이 남성(54.1%)보다 다소 높았으며, 나이별로는 20대(87.5%), 30대(74.0%), 만6-19세(5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SNS 이용자(94.4%)가 페이스북 등 프로필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SNS 이용률은 대학(원)생의 경우 76.8%로, 초·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이용률인 71.2%와 67.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11,12].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 학생에서 SNS 이용률은 58.6%로 앞선 결과에 비해 다소 낮게 관찰되었다. 이는 본 연구가 다양한 SNS 서비스 중 페이스북의 이용률만 조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의과대학 과정 중 가장 학습량이 많고 학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기간에 SNS 이용률을 조사한 것이 다른 연구결과에 비해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SNS를 하는 주된 목적은 친교 및 교제(79.5%), 취미 및 여가 활동(51.3%), 일상생활의 기록(49.6%), 개인적 관심사 공유(43.6%), 전문정보 및 지식 공유(35.0%) 등으로 나타났다[9,10]. SNS를 통한 활동의 형태는 게시물작성(49.4%)보다는 타인의 게시물 확인(83.8%) 또는 댓글과 같은 반응(64.1%), 그리고 이를 공유하는(25.9%) 활동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9,10]. SNS 이용자는 처음 SNS를 이용하게 된 계기가 '친교와 교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93.6%)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해서'(84.5%)나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83.8%)가 뒤를 이었다. 또한, 이러한 SNS를 통해 얻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9-11]. 앞선 연구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의과대학생도 친교와 교제를 위해 SNS 활동을 하고, 주로 생일을 축하하거나 안부를 묻는 글을 통해 인맥 관계를 유지하는데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학생활이나 여행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개인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폐쇄적인 의과대학의 분위기로 인해 주목을 받거나 남들의 눈에 띄는 행위를 지향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프로필 사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교하면 의미 있게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들의 더욱 높은 외모에 대한 관심도와 연관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판단된다.

이전 연구에서 SNS를 통해 '업무, 학업, 생활 정보 등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71.5%)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9,10]. 하지만 의과대학생들은 SNS를 이용하여 음악, 영화나 여행에 대한 생활정보를 얻었지만, 학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직 의과대학생들의 의학교육을 위해 개발된 SNS나 애플리케이션이 부족하기에 SNS를 통해 업무나 학업에 대한 정보나 도움을 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결과는 향후 SNS를 기반으로 한 의학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깊게 검토해보아야 하겠다.

한편, 전체 게시글의 10%는 타인의 글을 공유하는 경우로 그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은 유머와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게시물을 통해서 의과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요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나면서 음식이나 맛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예도 많았다. 그 외 음악이나 영화, 여행, 스포츠와 같은 여가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정치와 연관된 글을 공유하는 경우도 7%에서 나타났는데, 최근 SNS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지속해서 커지면서 의과대학생들도 정치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13]. 2008년 미국 대선에서는 30세 이하 유권자 10명 가운데 1명이 후보자와 SNS '친구'로 등록 하였다[14]. SNS가 정치참여의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할 수는 없다[13]. 하지만, 정치 및 정책에 무관심한 편이었던 의과대학생들이 이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알고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질병에 관련된 관심은 오히려 낮았다고 볼 수 있는 예로, 최근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근육위축 가족경화증에 대한 관심 제고와 기금 모금을 위한 '아이스버킷챌린지'가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면서, 국내 정치, 경제, 연예계 중심으로 SNS 아이스버킷 캠페인 참여가 이어졌었다[15]. 하지만 그 기간이 포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아이스버킷챌린지'에 참여한 의과대학생은 보이지 않았다. SNS를 통한 아이스버킷챌린지 열풍으로 미국 루게릭병 협회가 7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모금한 기금은 6,25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240만 달러를 모금한 것에 비해 26배나 급증했을 만큼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켰으나 의과대학생들의 관심은 미미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사회적 이슈나 유행에 관한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페이스북의 게시물이나 공유한 글 중에서 인문 사회적인 면에 대한 것이 거의 미미한 것이 이 의견을 뒷받침해준다. 최근 들어 인문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에서도 윤리성과 같은 의료인문학적 면이 강조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생들에게 있어 이러한 점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개 학년의 페이스북의 게시물들의 내용과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의과대학생들의 SNS 이용현황을 조사해보았다. 하지만 표본의 수가 매우 적고, SNS에서 활동한 것을 모두 조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SNS는 지금과 같은 효과 이외에 다양한 직업과 상황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에 대한 제도와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다양한 전문직에서 SNS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의 의학교육에서는 이와 연관된 활동이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없다[16,17]. 본 연구와 같은 의과대학생들의 SNS 이용형태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생들이 향후 의사로서 활동하는데 있어 SNS가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많은 교육과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Han SS, Lee SY, Choi WS, Kim SJ, Park SB, Lee SY. Depression and its influencing factors among Korean medical and engineering students in urban areas using 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 *Korean J Fam Med* 2009;**30**:539-48.
2. Ko YY, Kang JK, Hur YR. Mental health and coping strategies among medical students. *Korean J Med Educ* 2012;**24**:55-63.
3. Min SK, Shin WC, Kim KI, Chung JI, Kim DK.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between medical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0;**39**:1054-60.
4. Saipanish R. Stress among medical students in a Thai medical school. *Med Teach* 2003;**25**:502-6.
5. Supe A. A study of stress in medical students at Seth GS medical college. *J Postgrad Med* 1998;**44**:1.
6. Worley LL. Our fallen peers: a mandate for change. *Acad Psychiatry* 2008;**32**:8-12.
7. Kim JW. Freedom of press and freedom of broadcasting. *JOCS* 2007;**7**:111-42.
8. Song KJ. Are SNS users participatory?: political participation types and SNS in the U.S. *Korean World Polit* 2014;**30**:59-94.
9. Lim JM, Lee YY, Jang JS, Lee JH, Yu JS. *Internet Usage Survey in 2013*. Seoul: KISA; 2013.
10. Lim JM, Lee YY, Jang JS, Lee JH, Yu JS. *Mobile Internet Usage Survey in 2013*. Seoul: KISA; 2013.
11. Sin S. SNS usage status. In: KISDI, editor. *KISDI Stat Report*. Jincheon: KISDI 2013. p. 11-5.
12. Song Y. Big data age! evolution of SNS and public policy. In: Kim ST, editor. *IT & Future Strategy*. Daegu: NIA; 2012. p. 1-32.
13. Yun SY. A critical review of SNS political participation studies. *Informatization policy* 2013;**20**:3-19.
14. Rainie L, Smith A. The Internet and the 2008 Election. In: *Pew Internet Am Life Project*. Washington: Pew Research Center; 2008.

15. Lee YH. Use of domestic SNS and analysis of major issues. *Internet Secur Focus* 2014;**10**:56-78.
 16. Garner J, O'Sullivan H. Facebook and the professional behaviours of undergraduate medical students. *Clin Teach* 2010;**7**:112-5.
 17. Guseh JS, Brendel RW, Brendel DH. Medical professionalism in the age of online social networking. *J Med Ethics* 2009;**35**:584-6.
-